야당의원 "열몫" 하겠습니다!

1 쌍발통 정운천

정운천의 인생(人生)

참다래 농장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위촉장 수여식 장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취임식

정운천 후보와 가족들

정운천은 1954년 인촌 김성수 부통령 생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고학(苦學)으로 삼수 끝에 고려대학교에 합격했고
장학생으로 졸업했습니다.

'농업을 살려보겠다'는 신념으로 해남 땅끝마을에 내려갔고,
수입개방으로 절망 속에 빠진 키위(참다래) 농가를 살려냈습니다.

성공한 농업CEO로 알려지면서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참다래아저씨'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신지식농업인회장과
한국농업CEO연합회장등을 역임한 정운천은
2005년 노무현 정부시절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본위원회 위원(차관급)으로
발탁됐습니다.

2008년에는 기존 농림부에 식품을 결합해 만든
농림수산식품부 초대 장관을 지냈습니다.
농민출신으로 초대 농림식품부 장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운천은
30년 지역주의 장벽에 갇힌 전북을 구해내고자
전주에서 세 번째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7년동안 정운천이 해냈습니다

1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추진단' 설치(2015년)

| 송하진 지사에게 걸려온 긴급한 전화

송하진 지사로부터 새만금 추진단 설립에 필요한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는데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한 명 만 반대해도 설립이 불가해 법사위원들의 도움이 절실하니 면담을 주선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나는 법사위 5명과 한 명, 한 명 면담일정을 잡고 송지사와 동행했다. 이병석 전 부의장은 "여 · 야 지역대표가 지역현안을 위해 협조하는 것이 너무 아름답다." 며 적극 도와주었고 특별법은 2015년 7월 통과됐다.

| 쌍발통 정치시대 열었다

한켠 마음속으로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 송하진 지사가 고마웠다.
비록 당은 달랐지만, 전북발전을 위한 마음은 하나였기 때문이다.
나는 '전북발전당' 소속이라는 심정으로 정성껏 도왔다. 여당과 야당이 함께 노력하니 어려운 일도 쉽게 풀렸다. 이것이 바로 쌍발통 정치다.

새만금 개발청,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공로로
김무성대표가 명예도민으로 위촉됐다.

"
여당과 야당이
함께 노력하니
어려운 일도 쉽게 풀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쌍발통 정치입니다.
"

여당의원 한 명 없는 전북에서 **정운천이 이뤄낸 기적**

남경필, 정운천 지역화합특위 공동위원장이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2012.11.22 전주에서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 법제화 기자회견 모습

2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2013년)

| 공약이냐 법이냐

LH 전북유치 실패 후 함거에서 나와 절치부심 기회를 찾고 있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기금운용본부(국민연금) 전주이전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추진을 약속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달랐다. 대통령공약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언제든 뒤바뀔 수 있지만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면 대통령도 막을 수 없다.

| 기금운용본부 소재지를 전북으로

전북에서 여당의원 한 명 없는 상황에서 법제화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대선기간에 대통령지지를 30% 받겠다는 것을 고리로 추진했다.
대통령 후보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무성 대표와의 인연을 활용해 설득했다.
천신만고 끝에 2012년 11월 22일 전북도청을 찾아 "소재지를 전북으로 한다."는 법안 발의하고 기자회견으로 약속했다.

| 전주 품으로 안긴 기금운용본부

007 작전처럼 진행된 '기금운용본부의 전주이전 법제화' 는 2012년 11월 22일 김무성 본부장, 김재원 의원에 의한 법안 발의 전주 기자회견이 단초가 돼, 2013년 6월 27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북이전이 확정됐다.

3 새만금 개발청을 설립(2012년)

| 위기

2011년 22조원을 투자하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을 확정했지만, 관련부서가 6개 부처로 나뉘어져, 속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 기회

여당 국회의원이 없는 전북으로서는 대선기간이 절호의 기회였다. 5선 의원의 남경필과 정운천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그 밑에 12명의 현역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지역화합특위가 만들어졌다. 그 특위가 중심이 되어 여당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탄생 됐다.

| 22일의 기적

지역화합특위가 중심이 되어 남경필 위원장이 입법 대표발의 하기로 했다.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1주일 동안 양당후보,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당 5역과 175명의 양당의원의 서명를 받아 입법발의 됐다.
이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었다. 상임위 소위, 상임위 본회의, 법사위, 본회의를 22일 만에 통과되는 기적을 이뤄냈다. 내면에는 정운천 공동위원장의 용의주도한 전략이 맞아 떨어진 결과였다.

7년동안 정운천이 해냈습니다

4 30년 숙원사업 왕궁 한센인 축산단지(2011년)

| 낙선의 아픔을 뒤로 하고

2010년 도지사 선거에서 18%지지를 얻어 낙선했다. 그러나 공약마저 저버릴 순 없었다. 왕궁축산단지는 30년 동안 어느 정치인도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던 버려진 땅이었다. 서울과 전주를 오가며 중앙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했으나 쉽지 않은 일이었다.

| '1154억' 예산결정 쾌거

환경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3개 부서로 관련 업무가 분산돼 수십 년 동안 왕궁 축산단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 위원으로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고 분산된 업무를 단일팀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했다. 마침내 국비 700억 지방비 454억을 가져오는 쾌거를 거두었다.

5 국가식품 클러스터 익산 유치(2008년)

전주 생물산업진흥원에서 대통령 업무보고시
국가식품 클러스터 전북유치발표

| 2008년 농식품부장관 취임

농업과 식품을 결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가 탄생됐고 내가 초대 장관으로 임명됐다. 재임시 전북을 위해 할 수 있는 첫 작품으로 국가식품산업단지 전북 유치를 강력히 제안했고 2008년 3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가식품단지 전북 익산 유치가 발표됐다.

| 전북을 푸드폴리스로 만들자

농업에 식품이 결합되면서 우리 농업은 6차산업으로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농생명식품산업의 선도역할을 할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바로 전북에 자리잡은 것이다.

6 한식 세계화(2008년)

| 한식의 세계화 추진

한식의 세계화는 꼭 필요한 사업이었고 전주가 제격이라고 판단했다.
한식재단 이사장으로 재직시 전주대를 한식특성화 대학으로 지정하고, 4년 동안 24억을 지원, 한식 조리학교를 신설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운천의 민생119

“민생정치가 딱이다”

정운천은 전북 민생119 본부장이 되어 민생 현장을 누비고 있다.
재래시장에서부터 아파트 관리실까지, 환경미화원부터 소방서 대원까지 민생현장을 다니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다.
100곳의 현장을 방문해 600여건의 크고 작은 민원을 청취했다. 대부분 일당독주 속에서 방치됐던 민원들이다.
정운천 민생119본부장은 “현장 속에 답이 있다. 반드시 당선돼서 시민들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시켜 드리겠다.”라고 약속했다.

현장에서 찾은 **보석 같은 공약**

민원명	내용	금액	비고
서민공동주택 지원	서민 노후 공동주택에 보수관리 및 안전진단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 제정	-	전체
야간 불빛 경관사업	완산칠봉, 거마공원, 막걸리골목, 삼천천 등 야간경관 명소 개발	-	삼천 · 효자
노인전용 실내체육관	어르신들이 사계절 게이트볼,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는 실내체육관	3억 5천만 원	삼천
정화조 하수관거 연결	효자1 · 2동 주택단지 정화조 하수관거 연결	250억 원	효자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승강장설치	정읍, 김제, 고창등 서남권 방향 승객들을 위한 정류장 설치	1억 원	혁신도시
서부신시가지 공용 주차빌딩	10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빌딩	-	서부 신시가지
어린이 통학 개선	우림초교 어린이 통학로 보행 경관교량 건설	3천만 원	효자
안전망 CCTV설치	문학초교 안전망 CCTV설치 및 통학로 정비	2억 2천만 원	서곡
서일공원 족구장 개선	서일공원 족구장을 4계절 족구장으로 개선	3억 원	서신
고속도로 노선변경	새만금-전주 중인동 통과 고속도로 노선 변경사업	-	중인동

정운천의 전북 5대 비전

대기업유치 통한 5만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업체 노조위원장들과 함께 전북기업유치 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삼성기업 유치 반드시 하겠습니다. 삼성, LG등 현대 SK등 대기업 회장을 반드시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뿐이었던 삼성기업 유치 해내겠습니다. **대기업 유치를 통해 5만 일자리 창출 하겠습니다.** 여당국회의원이 탄생하면 중앙정부와 여당 야당 쌍발통 통로가 생기고 투자환경이 좋아집니다.

전북 1조원 사회적 기업펀드 설립

전북 1조원 사회적 기업펀드 설립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기금(국민연금), 전북은행, 도와 협력하여 1조 전북 펀드를 만들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 탄소산업 분야에 **10억짜리 벤처 청년창업 회사 1000개 만들겠습니다.** 아들, 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희망의 빛을 밝히겠습니다.

기금운용본부 안착

전주가 금융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금융허브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금융투자전문대학원을 만들어 금융인재양성의 요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산업 인프라를 조성하여 기금운용본부가 차질 없이 전주에 내려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

새만금지역을 글로벌경제특구로 지정하겠습니다.
한중경협단지를 필두로 미국,일본, 유럽, 중동 등 전세계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글로벌종합계획을 만들겠습니다.
새만금국제공항, 새만금국제항만은 그에 따라 만들어 집니다. **새만금개발청을 전북으로 이전시키겠습니다.** 중국을 향한 서진정책으로 새만금을 동아시아를 잇는 새로운 통로로 만들겠습니다. 전북이 그 중심에 서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의 중심 전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완주통합 추진

전주완주통합 추진을 통해 **100만 광역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전주완주통합이 되면 서울 두 배 면적에 대도시급으로 성장기반을 마련해 대전, 광주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습니다. 기업유치, 산업경쟁력 강화, 청년일자리 창출 등 통합효과를 극대화해 호남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VISION

정운천의 전주 8대 핵심공약

삼천천 생태경관조성 사업

모악산에서 삼천천을 따라 꽃을 보며 산책할 수 있는 '아름다운 천변길'을 만들겠습니다. 삼천천을 생태경관 관광지역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삼천천에서 시민은 휴식을 하고 어린이는 꿈과 희망을 키울 것입니다.

'교육도시 전주'의 명성을 되찾겠습니다.

전주를 '교육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금융특성화고등학교(제2의 상산고)를 유치해 우수 금융특화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전주를 금융수학인재의 요람으로 만들겠습니다. 학원바우처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겠습니다. 학력신장을 통해 '교육도시 전주'의 명성을 되살리겠습니다.

효자동 경노종합복지타운(500억) 건립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는 종합복지문화타운을 효자동에 건립하겠습니다.
친교활동은 물론 스포츠, 의료, 음악, 전시, 공연 등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서신동 복합스포츠센터(150억)

전주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서신동에 '복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센터는 수영장, 배드민턴장, 휘트니스장, 북카페, 동아리활동실 등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을 망라한 형태로 지어집니다.

의료인프라 확충

도내 환자들이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자연치유 할 수 있는 '자연치유 힐링병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보훈가족들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훈병원'을 유치하겠습니다.

민생 119 접수 민원

아파트 주민자치회, 전통시장, 경로당, 농촌마을을 방문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1백여곳을 방문했고, 600여건의 민원을 청취했습니다. 70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정부여당과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현장 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용리교 등 교통인프라 확충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확' 바꾸겠습니다. 효천지구와 삼천지구를 연결하는 교량(250억, 가칭 용리교)을 만들겠습니다. 삼천천 좌안 자동차 전용도로(1200억)를 개통하겠습니다. 전주 제2외곽도로(800억)를 조기에 건설하겠습니다.

전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전북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대한민국 최고의 혁신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확충하겠습니다.
전주 · 완주로 나뉜 혁신도시 행정구역을 통합해 향후 전주완주통합의 기틀을 만들겠습니다.

PROMISE

꼭! 합격시켜 주십시오

야당의원 열 몫 하겠습니다!

정운천 이정현, "호남권 예산벨트 구축"합의

"전북예산확보, 여당의원 꼭 필요"

정운천 후보와 이정현 전남 순천 · 곡성 국회의원이
'호남권 예산벨트'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협약을 통해
▲ 전북-광주 · 전남 호남권 예산벨트 구축으로 예산확보
▲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 정기 개최
▲ 호남권 국책사업 성공적 추진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정운천 후보와 이정현 의원이 '호남권 예산벨트 구축'에 합의했다.

지난해 국가예산 증가율을 살펴보면
인천이 17%, 충남이 10%, 전남광주 5%를 보였고
전북은 0.7%에 그쳐 전국 꼴찌를 차지했다.
경북이 8천억 예산이 증가한 것에 비해
전북은 고작 4백여억원이 증액됐을 뿐이다.

정운천 후보는 "전북의 국가예산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집권여당과 소통할 수 있는 여당의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남 순천 · 곡성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노력해서 만든 예산확보 현황 (출처 : 국회의원 자료실)

사업명	순천만 정원	산업단지	도로기반	순천 대학교	시장개선	농업개선	생활·환경	보건의료	문화·교육	최근 4대 숙원도로	총합계
예산	243억원	6,282억원	281억원	178억원	236억원	872억원	3,979억원	210억원	1,324억원	5,861억원	약 2조원 (1년 8개월 동안)

이정현의원 당선 후 목포, 여수, 광양, 순천 4개 시에서 3등하던 순천시가 1년 반만에 1등으로 예산이 올라갔다.

고창출생
남성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 졸업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군산대학교 경영학 명예박사학위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석좌교수

전)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한국농업CEO연합회 회장
전)한국신지식농업인회 회장
전)새누리당 최고위원
전)국무총리 직속 새만금위원회 위원
전)새누리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지역화합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구제역 특별위원회 위원장
현)새누리당 민생119 전북본부장

블로그 바로가기

전주시 완산구 홍산1길 21 서희스타힐스 상가동 208 | 선거사무소 Tel : 063.271.0119 | Fax : 063.275.0119
제작 : 제이아이디자인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625-22 T 063.221.2264